高麗時代 點吐口訣의 符號에 관한 小林芳規 先生의 論考에 대한 檢討*

張景俊**

要約

本稿는 高麗時代 點吐口訣에 使用된 符號에 대한 最近의 研究成果를 紹介하고 小林芳規 先生의 論考에 記述된 內容 가운데 再考의 餘地가 있는 部分을 檢討해 본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小林 先生이 '返讀符'로 기술한 다섯 가지 類型 중에서는 유가사지론 계통에 사용된 [3], [4], [5]만 認定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小林 先生이 '句節符'로 기술한 부호들은 모두 句節符로 보기 어렵다. 셋째, 小林 先生이 '合符'로 기술한 a, b, c의 세 유형 중에 a형과 b형은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넷째, 小林 先生이 '四聲點'의 例로 제시한 것들은 점토구결의 부호로 認定하기 어렵다. 다섯째, 小林 先生이 '節博士'의 例로 제시한 것들은 판단을 보류한다.

*핵심어 : 한문훈독(漢文訓讀), 점토구결(點吐口訣), 석독구결(釋讀口訣), 훈점(訓點), 부호(符號)

---

* 이 글은 2010年 11月 12~13日, 日本 麗澤大学에서 열린 "日韓言語学者会議-韓国語を通じた日韓両国の相互理解と共生"에서 "韓国の漢文訓読に使用される符号について"라는 題目으로 發表한 것이다.

** 高麗大學校 文科大學 國語國文學科 助教授

1. 머리말

漢文으로 記錄된 문장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日本語로 풀어읽는 日本의 漢文訓讀은 8世紀末부터 現代까지 持續的으로 資料가 만들어져 保存되어 왔고 그 資料에 대한 硏究의 歷史도 길다. 반면에 韓國에서는 1973年에 〈舊譯仁王經〉의 釋讀口訣이 發見되고 난 다음에야 日本의 漢文訓讀과 같은 方式의 文化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2000年에 〈瑜伽師地論〉의 點吐口訣이 發見되고 나서야 日本의 오코토點과 같은 것이 韓國에서도 使用된 적이 있었음을 確信하게 되었다. 日本과 달리 韓國에서는 傳統의 斷絶이 매우 심했고, 따라서 남아 있는 資料의 量이나 硏究의 歷史도 日本에 비해 貧弱한 편이다.

筆者의 경우 2001年부터 日本의 오코토點에 해당하는 口訣點(點吐)의 解讀에 대해 硏究해 왔는데 그동안 日本의 訓點資料 硏究成果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韓國의 資料만을 가지고 獨自的인 方法論으로 硏究하였다. 日本의 硏究者, 特히 韓國에서의 點吐口訣의 發見과 初期硏究에 커다란 貢獻을 한 小林芳規 先生의 先行硏究를 參考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告白이지만 筆者가 日本語를 읽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최근 들어 筆者가 日本語를 조금 배워 小林 先生의 論考를 다시 읽고 새로 알게 된 바가 많았다. 예를 들어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52)에는 오코토點을 記入하는 位置에 대해 "오코토點을 찍는 位置는 漢字의 字面의 네 모서리·네 변이 아니라 네 모서리·네 변의 안쪽이나 바깥쪽이다. … 다만 實際 加點하는 데 있어서는 位置가 조금 빗나간 경우도 있고 네 모서리·네 변에 걸치는 경우도 보이지만, 그것은 위에 보인 (點圖上의) 位置가 실제 加點하는 데 있어 조금 빗나간 바리에-숀(variation: 變異)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하였는데,[1] 이 '變異'는 筆者가 張景俊(2002, 2004, 2007: 63~67)에서 重要하게 言及한 '口訣點의 位置

變異'라는 槪念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小林芳規(2002, 2004)에서 韓國의 角筆口訣에 使用되었다고 記述한 符號 중에는 現在의 筆者가 보기에 달리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小林 先生의 記述內容은 日本 訓點資料에 대한 오랜 硏究經驗이 反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硏究者의 論考에 많은 影響을 미치므로 최근 韓國에서 이루어진 硏究成果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高麗時代 點吐口訣에 使用된 符號에 대한 最近의 硏究成果를 紹介하고 小林芳規 先生의 論考에 記述된 內容 가운데 관련 부분을 檢討해 보려고 한다.

2. 韓國의 高麗時代 點吐口訣에 使用된 符號의 槪要

韓國의 高麗時代 點吐口訣에 記入된 點이나 線 모양의 記號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言語形式(音素, 音節 乃至 語節)을 表記한 點吐와 言語形式과는 無關하게 일정한 機能을 하는 符號가 그것이다. 點吐와 符號는 대체로 形態上 쉽게 區分할 수 있다. 點吐의 表記에는 주로 點이나 짧은 直線을 쓴 데 반해 符號의 表記에는 굽은 線이나 긴 直線을 주로 使用하였기 때문이다.

張景俊(2008b)에서는 先行硏究들과[2] 角筆口訣 硏究會의[3] 共同硏究

1) "ヲコト点を施す位置は、漢字の字面の四隅・四辺ではなくて、四隅・四辺の内側や外側である。… 但し、実際の加点に当たっては位置のずれた場合もあり、四隅・四辺に懸かる場合も見られるが、それは右掲の位置が実際の加点に当ってずれたバリエーションと考えられる"

2) 點吐口訣의 符號에 대한 初期의 先驅的인 硏究로는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南豊鉉(2000), 李丞宰(2000, 2001, 2002), 金永旭(2001) 等이 있고, 이후의 精密한 硏究로는 張景俊(2003, 2006, 2007: 35-52, 2008a, 2008b,

資料를 參考하여 高麗時代 點吐口訣에 使用된 符號를 全般的으로 考察하였는데,[4] 여기에 정리된 符號들을 主要 機能에 따라 分類하면 [表 1]과 같다.[5][6]

2009), 朴鎭浩(2004), 安大鉉(2009) 等이 있다.

3) 이 硏究會는 筆者를 비롯한 젊은 硏究者들이 2002年 1月에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韓國學術振興財團의 支援을 받아(硏究責任者: 李丞宰 敎授) 모두 9種의 資料에 대한 共同 判讀 및 解讀案을 出刊하였다.

4) 現在까지 알려진 13種의 高麗時代 點吐口訣 資料 中에서 아직 精密하게 硏究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3種(延世大所藏 〈法華經〉 卷1, 個人所藏 〈合部金光明經〉 卷3, 日本 南禪寺所藏 〈瑜伽師地論〉 卷8)을 除外한 10種의 資料를 對象으로 하였다. 먼저 硏究會의 共同 判讀案, 寫眞影印本, 先行硏究를 參考하여 符號의 索引을 作成하고, 機能에 따라 分類한 다음 各各의 符號에 대해 簡略히 說明한 것이다. 索引은 張景俊(2008b)에 1次로 發表하였고, 補完作業을 거쳐 張景俊(2009)에 修訂內容을 公開하였으며, 一部를 다시 補完한 修訂本 全體를 本稿의 附錄으로 실었다.

5) 符號의 名稱은 原則的으로 旣存硏究에서 提案된 것을 따랐으나 '連結線, 點圖線, 削除線'은 必要에 의해 張景俊(2008b)에서 새로 命名하였다. 또한 '重複線, 合符, 補充線, 校正符號'는 旣存硏究에서 提案된 名稱을 유지하되 形態를 基準으로 다시 下位分類를 하였다.

6) 이 글의 심사 과정에서 '指示線'은 "'지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옮겨 적는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확할 것"이므로 '移記線'으로 바꾸고, '逆讀線'은 "목적어에 붙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 붙는다. 또한 선을 긋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그렇다면 '동사를 후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後置線'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듯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 제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指示線'의 경우 이 부호가 단순히 '옮겨 적는'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지시선'이라는 명칭이 이미 학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이것을 바꿀 만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니며, 대안으로 제시된 '이기선'이라는 용어는 읽거나 듣는 사람이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시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다음으로 '逆讀線'의 경우 제안에서 지적한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동사의 후치'라는 것은 결국 어순과 관련된 개념이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토구결에서 어순의 지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호인 '역독점'과

類型	主要 機能	符號의 名稱		系統別 分布
Ⅰ	點吐의 位置를 分明하게 表示	境界線		두루 쓰임
		區分線		<華嚴>에 주로 쓰임
Ⅱ	同一한 點吐를 두 번 달았음을 表示	重複線	直線形	<華嚴>에만 쓰임
			複合形	
Ⅲ	點吐를 달아야 할 漢字에 달지 않았음을 表示	指示線	/	<瑜伽>에만 쓰임
			\	
		連結線	內部形	<華嚴>에만 쓰임
			外部形	
Ⅳ	텍스트의 統辭構造에 대한 理解를 도움	合符	內部形	<瑜伽>에 주로 쓰임
			外部形	<華嚴>에만 쓰임
		逆讀線		<瑜伽>에 주로 쓰임
		合符逆讀線		<瑜伽>에만 쓰임
		述目線		<華嚴>에만 쓰임
		補充線	—	<華嚴>에만 쓰임
			\	
Ⅴ	漢文 原文이나 點吐의 校正 내지 註釋	點圖線		두루 쓰임
		削除線		<華嚴>에만 쓰임
		校正符號	○	<瑜伽>에 주로 쓰임
			ㅅ	
		口訣字		<瑜伽>에 주로 쓰임
		漢字		두루 쓰임
不明	아직 그 機能을 파악하지 못함	빼침선		<瑜伽>에만 쓰임
		不審紙		<華嚴>에 주로 쓰임
		未詳		두루 있음

[表 1] 點吐口訣에 使用된 符號 目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와 짝을 이루는 명칭인 '역독선'을 꼭 폐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분류에 의하면 高麗時代 點吐口訣 자료에는 17종의 符號가 使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유의할 점은 南豊鉉(2000)을 비롯한 韓國 硏究者의 初期硏究나 日本語로 發表된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小林芳規(2002, 2004) 등에 記述되어 있는 符號 중에는 위의 目錄에 없거나 있더라도 가리키는 對象이 다른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返讀符(逆讀符), 句節符(句點, 讀點, 句切), 聲調符, 節博士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第3節에서 자세히 檢討해 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硏究된 高麗時代 點吐口訣은 크게 〈瑜伽師地論〉 系統과 〈華嚴經〉 系統의 두 가지 類型으로 분류되는데, 이 두 계통은 點圖에서 커다란 差異를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系統의 點吐口訣이 符號의 使用에서도 뚜렷한 差異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을 確認하기 위하여 [表 1]에 제시한 符號를 주로 使用된 文獻의 系統別로 다시 分類한 다음, 각각의 文獻別 頻度를 제시하면 [表 2]와 같다.

類型	符號 \ 文獻		① 湖林本 〈瑜伽〉 卷3	② 誠庵本 〈瑜伽〉 卷5	③ 誠庵本 〈瑜伽〉 卷8	④ 誠庵本 晉本 〈華嚴〉 卷20	⑤ 誠庵本 周本 〈華嚴〉 卷6	⑥ 誠庵本 周本 〈華嚴〉 卷22	⑦ 湖林本 周本 〈華嚴〉 卷31	⑧ 湖林本 周本 〈華嚴〉 卷34	⑨ 誠庵本 周本 〈華嚴〉 권36	⑩ 誠庵本 周本 〈華嚴〉 卷57	符號別 頻度	
共通	境界線		21	41	25	4	15	7	19	15	15	1	163	
	點圖線		0	1	1	0	0	0	3	2	1	0	8	
	漢字		3	1	1	3	4	0	7	0	0	4	23	
瑜伽師地論系統	指示線	/	21	25	29	0	0	0	0	0	0	0	75	91
		\	3	7	6	0	0	0	0	0	0	0	16	
	合符(內部形)		3	8	42	6	0	0	0	1	0	1	61	
	逆讀線		43	62	128	0	0	1	0	0	0	0	234	
	合符逆讀線		8	17	36	0	0	0	0	0	0	0	61	
	口訣字		23	32	36	0	0	0	0	1	0	2	94	
	빼침선		17	15	23	0	0	0	0	0	0	0	55	
	校正符號	○	0	2	1	2	0	0	0	0	0	0	5	7
		ㅅ	2	0	0	0	0	0	0	0	0	0	2	
華嚴經系統	區分線		0	0	3	0	5	1	2	2	1	0	14	
	重複線	直線	0	0	0	0	29	9	0	11	2	5	56	86
		複合	0	0	0	0	0	0	6	17	7	0	30	
	連結線	內部	0	0	0	0	0	1	0	0	0	1	2	13
		外部	0	0	0	0	0	0	1	5	0	5	11	
	合符(外部形)		0	0	0	0	1	0	4	0	0	1	6	
	述目線		0	0	0	0	2	1	3	6	1	8	21	
	補充線	—	0	0	0	0	4	3	2	3	4	0	16	21
		\	0	0	0	0	0	0	0	1	0	4	5	
	削除線		0	0	0	0	0	0	2	1	0	7	10	
	不審紙		0	0	1	0	8	26	27	21	17	32	132	
			144	211	332	15	68	49	76	86	50	71	計 1100	

[表 2] 點吐口訣에 使用된 符號의 分布 : 系統別 分類

위의 表를 통해 高麗時代 點吐口訣은 系統에 따라 點圖 뿐만 아니라 주로 使用하는 符號의 種類에서도 커다란 差異를 보인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7]

3. 小林芳規 先生의 論考에 言及된 符號에 대한 檢討

小林芳規・西村浩子(2001)에는 2000年 2月부터 2001年 4月까지 韓國에서 이루어진 角筆資料 調査의 자세한 經過와 함께 이 때 調査된 53點의 資料에서 發見된 角筆에 의한 文字와 符號가 種類別로 記述되어 있다. 그리고 角筆로 記入한 符號에 대해서는 [1]오코토點, [2]返讀符, [3]句切符, [4]合符, [5]聲調符, [6]節博士, [7]注示符의 순서로 다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小林芳規(2002: 13-38)와 小林芳規(2004: 134-163)에 內容이 조금씩 修訂된 채로 실려 있다(순서는 같음). 이하에서는 가장 最近에 修訂된 小林芳規(2004: 134-163)을 基準으로 하여 오코토點을 제외한[8] 나머지 符號들에 대해 記述한 부분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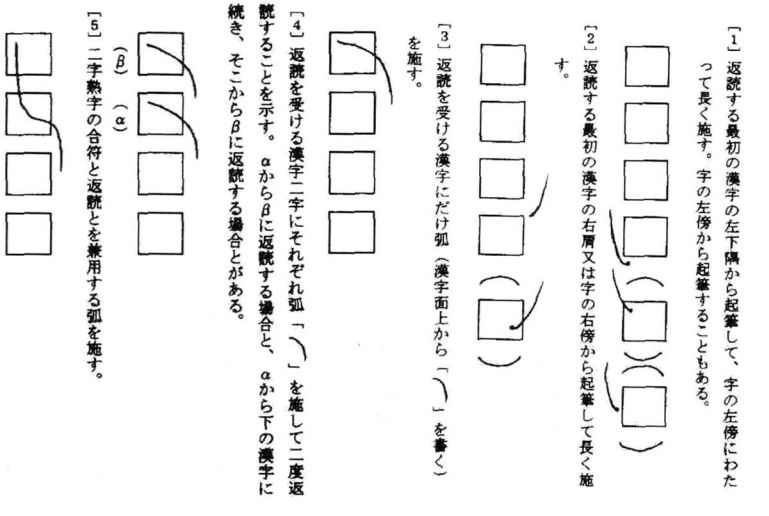
3.1. 返讀符

小林 先生은 高麗時代 點吐口訣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5종류의 返讀符가 使用된 것으로 記述하였다.

---

7) 이와 관련하여 張景俊(2006)에서는 點圖上에서 서로 區分되는 口訣點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은 〈瑜伽師地論〉 系統과 相對的으로 느슨한 〈華嚴經〉의 點吐 體系의 特徵이 符號의 使用에도 影響을 미쳤음을 考察하였다.

8) 오코토點에 대해서는 아직 硏究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小林芳規(2001: 53-54), 小林芳規(2002: 18-21), 小林芳規(2004: 141-142) 참조)

위의 [3], [4]는 [表 1]의 '逆讀線'에 해당하고 [5]는 [表 1]의 '合符逆讀線'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瑜伽師地論〉 系統에 주로 使用된 返讀符로 파악하는 데 아무 異見이 없다. 그러나 위의 [1]과 [2]는 再考의 餘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小林芳規(2004)에서 [1]과 [2]의 例로 든 15個의 符號는 張景俊(2008b)의 符號索引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點吐口訣 文獻의 번호는 [表 2]에 標示한 ①~⑩을 使用하기로 한다. 즉 '命③10:16'은 誠庵本『瑜伽師地論』卷8의 第10張 第16行의 '命'字를 가리킨다. 이하 같음)

(1) '빼침선'의 예로 파악된 경우 - 命③10:16, 己②7:19, 塵②7:19, 他②7:19, 穢②6:11, 壽③18:9

(2) '重複線'의 예로 파악된 경우 - 月⑥20:16, 具⑨4:19, 著⑥14:3,

成⑥16:11, 樂⑤3:16, 樂⑤12:11,
槃⑩19:18

(3) '指示線'의 예로 파악된 경우 - 前③18:5

(4) '連結線'의 예로 파악된 경우 - 別⑩17:10

먼저 '빼침선'으로 파악된 예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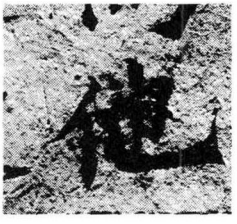
[그림1]命③10:16



[그림2]己②7:19



[그림3]塵②7:19



[그림4]他②7:19



[그림5]穢②6:11



[그림6]壽③18:9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符號는 특정한 한 點에서 始作하여 漢字의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 나가는 모양으로서 曲線보다는 直線에 가깝다. 〈瑜伽師地論〉 系統에서만 쓰인 分布上의 特徵도 注目되는데, 이것들을 返讀符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張景俊(2007: 48-49)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指摘하였다. 첫째, 위에 記述한 형태의 符號가 記入된 漢字 중에는 返讀이 始作되는 位置로 볼 수 없는 예가 있다. 둘째, 點吐口訣의 懸吐 原則上 返讀이 시작되는 곳에는 반드시 點吐를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返讀이 始作되는 位置임을 알리는 機能만을 하는 符號를

굳이 使用할 必要가 없다. 셋째, '返讀의 始作表示'라는 단순한 機能을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始作點의 位置가 너무 多樣하다. 이 符號의 始作點이 多樣하다는 것은 이것의 機能이 그 始作點의 位置와 어떤 關聯이 있음을 暗示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韓國의 學界에서는 그동안 이 符號의 機能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最近 安大鉉(2009)에서 그 一部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위의 예 중에서 [그림1](命③10:16)에 使用된 것은 引用된 문장이나 羅列된 內容이 어디까지인지를 表示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2](己②7:19), [그림3](塵②7:19), [그림4](他②7:19)에 使用된 것은 動詞로 쓰인 '爲'의 意味를 區分하는 것인데, [그림2], [그림4]에서는 '위하다'의 意味로 쓰였고 [그림3]에서는 '하다' 또는 '되다'의 意味로 쓰였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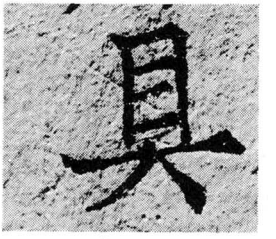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硏究의 進展에도 불구하고 이 符號의 始作點의 位置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그림5](穢②6:11), [그림6](壽③18:9)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機能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表1]에서는 이 符號의 機能을 '不明'으로 表示해 놓았고, 符號의 이름도 이것의 機能을 나타내는 말을 쓰지 않고 形態를 나타내는 '빼침선'이라고 부른다.[9]

다음으로 '重複線'으로 파악된 例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9) 筆者를 비롯한 硏究者들은 李丞宰 敎授의 提案에 따라 그동안 이 符號를 '삐침선'이라 불러 왔는데 安大鉉(2009)에서 '빼침선'으로 바꿔부를 것을 提案하였고, 筆者는 이 符號의 機能의 一部를 밝힌 그의 功勞를 認定하여 그의 提案대로 '빼침선'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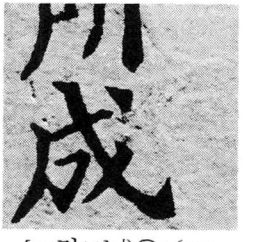
[그림7]月⑥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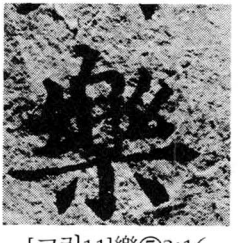
[그림8]具⑨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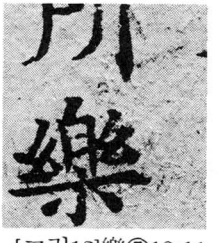
[그림9]著⑥14:3



[그림10]成⑥16:11



[그림11]樂⑤3:16



[그림12]樂⑤12:11



[그림13]槃⑩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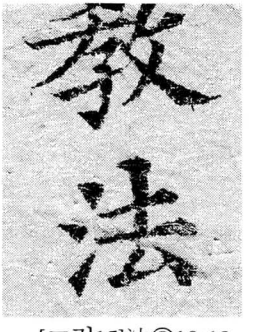
이 符號들은 〈華嚴經〉 系統에 쓰이는 것인데 위에 살펴본 〈瑜伽師地論〉 系統의 빼침선과 形態가 비슷하여 點이나 線의 한 끝에서 始作하여 漢字의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모양이다. 朴鎭浩(2004)에서는 이 符號가 ⑤의 文獻에 使用된 예들을 검토한 결과 이 符號가 시작한 위치의 點吐가 두 번 記入된 것임을 表示한다는 것을 밝히고 '重複線'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후의 共同硏究에서 ⑥, ⑧, ⑨, ⑩에서도 이 重複線이 使用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⑦, ⑧, ⑨에서는 아래 [그림14]와 [그림15]에

보이는 바와 같이 記入한 點吐를 시작점으로 하여 漢字의 바깥쪽으로 線을 긋고 거기에 더하여 해당 點吐를 둘러싼 線까지 그어 놓은 형태의 重複線도 발견되었다.



[그림14]量⑧20:19



[그림15]法⑧10:19

그리하여 張景俊(2008b)에서는 重複線을 '直線形'과 '複合形'으로 구분하였는데 複合形 中에는 直線이 분명치 않은 例도 있어 다시 細分될 可能性도 있다. ⑤, ⑥, ⑩에서는 直線形만 使用되고 ⑦에서는 複合形만 使用되었으며 ⑧, ⑨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使用된 것으로 調査되었다.

다음으로 '指示線'이나 '連結線'의 例로 파악된 경우를 보자.



[그림16]前③18:5



[그림17]別⑩17:10

[그림16](前③18:5)에는 '前'字를 通過하는 긴 사선이 있는데, 이것은 '前'字에 記入하여야 할 點吐들의 記入位置가 겹쳐 나중에 記入하게 되는 點吐를 그 위 글자인 '翻'字에 記入하고 나서 그 사실을 지시하기 위해 그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前'에 記入된 點吐를 먼저 읽은 다음 '翻'에 記入된 點吐를 읽는 순서로 解讀하여야 한다. 이처럼 〈瑜伽師地論〉에는 원칙적으로 點吐를 記入해야 할 漢字에 記入하기 어려운 狀況에서 그 위의 글자나 아래 글자를 빌려 거기에다 點吐를 記入했음을 指示하는 符號가 使用되었는데, 張景俊(2003)에서 이 符號의 機能과 種類를 밝히고 '指示線'이라 불렀다. 指示線은 '/' 모양의 上向指示線과 '\' 모양의 下向指示線이 있다.

그리고 [그림17](別⑩17:10)의 바깥쪽에 '別'字와 그 위의 '記'字를 이어주는 긴 曲線은 '別'字에 記入하여야 할 點吐를 그 위의 '記'字에 잘못 記入하고 나서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張景俊(2008b)에서는 이와 같이 〈華嚴經〉 系統에서 懸吐者의 실수로 인해 點吐를 원칙적으로 달아야 할 漢字에 달지 못한 경우에 쓰인 符號를 '連結線'이라 불렀다. 連結線은 이 例처럼 漢字의 바깥 쪽으로 그은 外部形과 두 漢字의 안쪽으로 이은 內部形의 두 가지가 있는데, 形態上으로는 合符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機能上으로 區別되는 것이다.

指示線과 連結線은 원칙적으로 點吐를 記入해야 할 漢字에 記入하지 않고 다른 漢字에 記入하였을 경우에 使用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張景俊(2008b)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差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符號로 분류하였다. 첫째, 使用環境의 측면에서 指示線은 주로 點吐의 位置가 겹치거나 位置를 혼동할 可能性이 있는 경우에 使用하였고 懸吐者의 실수로 인해 使用한 경우는 드물다. 반면 連結線은 대체로 懸吐者의 실수에 의한 경우에 使用하였고 결과적으로 使用頻度도 指示線에 비해 훨씬 낮다. 둘째, 形態의 측면에서 指示線은 漢字의 안쪽에 斜線 또는 逆斜線 모양으로 긋는다. 반면 連結線은 漢字

의 안쪽에 주로 垂直線을 긋거나 漢字의 바깥쪽에 曲線으로 긋는다. 셋째, 分布의 측면에서 指示線은 〈瑜伽師地論〉 系統에서 쓰이고 連結線은 〈華嚴經〉 系統에서 쓰였다. 넷째, 下位分類의 측면에서 指示線은 形態의 差異가 重要한 意味를 갖지만 連結線은 그렇지 않다. 즉 指示線은 斜線과 逆斜線이 '上向指示'와 '下向指示'로 분명히 區分되지만 連結線은 漢字 안쪽의 內部形과 漢字 바깥쪽의 外部形의 形態의 差異에 어떤 意味를 부여하기 어렵다.

결국 小林 先生이 記述한 다섯 가지 類型의 返讀符 中에 〈瑜伽師地論〉 系統에서 返讀을 받는 漢字에 使用된 [3], [4], [5]만 返讀符로 認定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句切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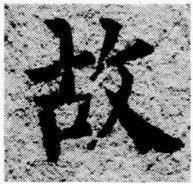
小林 先生은 高麗時代 點吐口訣에서 角筆로 記入한 句切符에는 (i) 星點 "·"에 의한 것과 (ii) 橫線에 의한 것이 있다고 記述하였다. 먼저 (i)의 星點에 의한 것은 오코토點과 형태는 같으나 기능이 구별되는 (文末에 使用되는) 句點과 (文節末에 使用되는) 讀點이 使用되었다고 본 것이다. 句點은 〈瑜伽師地論〉과 〈華嚴經〉에서 位置가 다르고 讀點은 〈瑜伽師地論〉에서만 쓰인 것으로 記述하였는데, 小林(2004: 147)에서 例를 든 것을 하나씩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18]句③16:18
〈瑜伽師地論〉의 句點例



[그림19]結③7:5
〈瑜伽師地論〉의 讀點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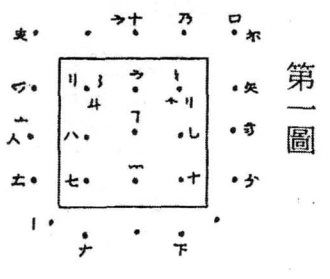


[그림20]故⑥18:23
〈華嚴經〉의 句點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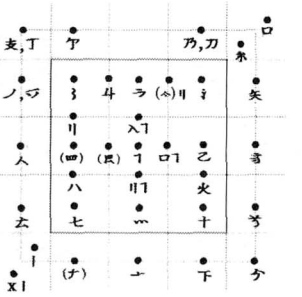
現在 韓國의 口訣 硏究者 中에 위의 예들을 點吐(오코토點)가 아닌 句讀點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의 點들은 다른 點吐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이며 句讀點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明白하기 때문이다. [그림18](句③16:18)에는 두 개의 單點이 있는데 각각 'ㅣ'와 'ᄀᆞ'로 보아 'ㅣᄀᆞ'로 읽어야 하고, [그림19](結③7:5)에서도 하나의 單點과 하나의 雙點(·.)이 있는데 각각 'ㅗ'와 'ㅅᄒᆞᄀᆞ'로 보아 'ㅗㅅᄒᆞᄀᆞ'로 읽어야 한다. 만약 句點, 讀點을 認定하게 되면 같이 記入된 다른 點吐의 解讀이 困難해진다. [그림20](故⑥18:23)에는 單點 하나만 있으나 이 點이 쓰인 다른 用例들을 綜合的으로 檢討해보면 이것이 句點이 아니라 'ᄀᆞ'를 나타내는 點吐임은 明白하다.

韓國의 口訣 硏究者들이 그동안 硏究해 온 바에 따르면, 字吐口訣에서 口訣字 'ᄀᆞ'나 'ㅗ'가 쓰인 環境과 點吐口訣에서 'ᄀᆞ'나 'ㅗ'에 대응하는 口訣點이 使用된 環境은 거의 一致한다. 따라서 만약 小林 先生의 記述처럼 點吐口訣에 句讀點이 使用된 것이 맞다면 字吐口訣에서도 口訣字 'ᄀᆞ, ㅗ'는 句點, 讀點의 機能을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不可能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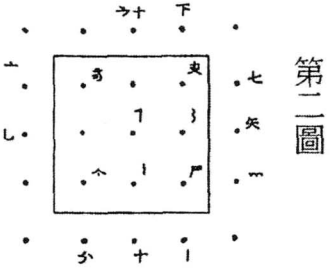
小林(2004: 136, 137)에 提示된 〈瑜伽師地論〉과 周本 〈華嚴經〉의 單點의 點圖를 韓國 硏究者들의 最新 成果를 反映하여 紹介한 張景俊(2008c: 79)의 點圖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小林 先生의 點圖에서는 句點, 讀點이 놓이는 것으로 파악한 자리가 빈칸으로 남아 있는데 이 자리는 韓國의 硏究者들이 推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ᄀᆞ'와 'ㅗ'로 채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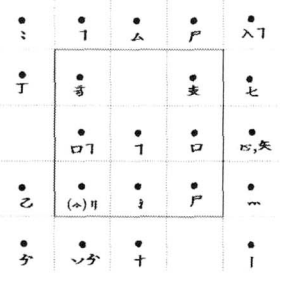
[그림21]小林芳規(2004: 136)



[그림22]張景俊(2008c: 79)



[그림23]小林芳規(2004: 137)



[그림24]張景俊(2008c: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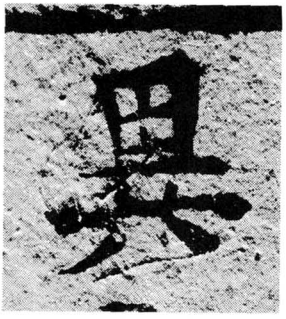
다음으로 (ii) 橫線에 의한 句切符에 대해 살펴보자. 小林芳規(2004: 137)에서는 高麗時代 點吐口訣 資料에서 7個의 例를 提示하였는데, 이것들이 張景俊(2008b)의 符號索引에서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1) '境界線'의 例로 파악된 경우 - 事③3:14, 因②16:5, 異②16:5
(2) '述目線'의 例로 파악된 경우 - 立⑤12:5, 見⑩18:17
(3) 索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闕⑨14:7, 爲⑩10:17

먼저 境界線으로 파악된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25]事③3:14


[그림26]因②16:5


[그림27]異②16:5

위의 符號들은 모두 〈瑜伽師地論〉의 例들이다. [그림25](事③3:14)와 [그림26](因②16:5)의 경우 그 아래 글자인 '唯'字와 '非'字에 記入된 것처럼 보이는 '/' 모양의 點吐가 '事'字와 '因'字의 아래에 記入된 것임을 表示하기 위해 四角形의 밑변에 해당하는 線을 그어놓은 것이다. [그림27](異②16:5)의 경우도 '異'의 아래쪽에 橫線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橫線의 왼쪽에 위로 올려그어진 線이 이어져 있다. 이것은 '異'字의 안쪽에 記入된 '/' 모양의 點吐의 位置가 四角形 內部의 한가운데임을 보이기 위해 四角形의 아랫변과 왼쪽변에 해당하는 線을 그은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點吐의 位置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基準이 되는 四角形의 네 변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線을 그은 것을 境界線이라 부르는데 張景俊(2007: 42-46)에서 〈瑜伽師地論〉에 보이는 더 많은 用例와 解說을 參考할 수 있다. 위의 例들은 그 주변에 記入된 點吐의 位置와 關聯된 것이 分明하기 때문에 句切符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述目線으로 파악된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28]立⑤12:5



[그림29]見⑩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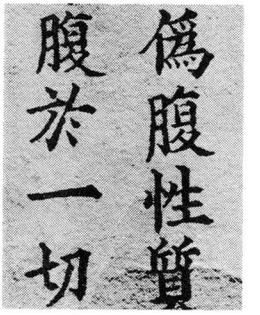
[그림28](立⑤12:5)는 朴鎭浩(2004: 144)에서 자세히 說明한 例이다. 그에 따르면 動詞 '建立'과 目的語 '一切衆會道場海' 사이에 水平으로 길게 線이 그어져 있는데, 이런 線은 주로 述目(述語-目的語) 關係가 重疊되어 있을 때 動詞와 目的語 사이에 긋는 일이 많다. 朴鎭浩(2004)에서는 이러한 統辭的 環境에 使用된 橫線의 符號를 述目線이라 불렀다.

다음의 [그림29](見⑩18:17)도 文脈을 살펴보면 動詞 '證見'과 目的語 '最上義' 사이에 橫線이 그어져 있는 것이므로 또한 述目線으로 파악할 수 있다. [表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述目線은 周本 〈華嚴經〉에서만 모두 21個의 用例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특정한 統辭的 環境에서 多數의 用例가 使用되었으므로 이것을 範圍가 모호한 '句節部'라고 하는 것보다는 '述目線'이라는 具體的인 槪念의 符號로 認定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張景俊(2008b)의 符號索引에 포함되지 않은 두 例를 보자.



[그림30]闕⑨14:7



[그림31]僞⑩10:17

[그림30](闕⑨14:7)에 보이는 橫線은 文脈을 살펴본 결과 動詞 '闕'과 目的語 '明導' 사이에 그어져 있는 것이었다. 마땅히 述目線으로 파악해야 할 것인데 張景俊(2008b)의 索引作業에서 筆者의 잘못으로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서, 本稿의 [表 2]와 附錄으로 添附한 符號索引에는 述目線으로 反映하였다.

[그림31](僞⑩10:17)은 判斷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이다. 小林(2004: 148)에서는 "僞腹"처럼 읽지 않고 아래 글자에 이어지지 않음을 나타낸 用法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래 보인 바와 같이 앞뒤의 文脈을 살펴보면 10가지의 '腹'이 나열된 것 중의 두 번째인 '離幻僞腹'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小林 先生이 추정한 用法의 符號를 그곳에 記入해야 할 뚜렷한 理由를 찾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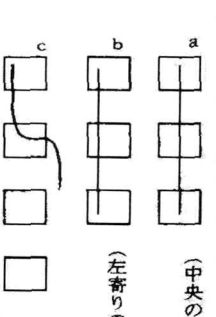
佛子 菩薩摩訶薩 有十種腹 何等爲十 所謂 離諂曲腹 淸淨故 離幻僞腹 性質直故 不虛假腹 無險詖故 無欺奪腹 於一切物無所貪故 斷煩惱腹 具智慧故 … 是爲十

또한 寫眞을 자세히 보면 '僞'字와 '腹'字 사이의 橫線에서 아래로 '腹'자를 관통하여 다음 줄의 '切'자에까지 이어지는 긴 線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양의 符號는 아직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筆者는 이것을 句節符나 다른 符號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暫定的으로 [表 2]와 符號索引에서 '未詳'에 追加시켜 놓았다.

결국 本稿의 檢討對象인 10種의 高麗時代 點吐口訣 資料에서는 분명히 句節符라고 할 만한 符號는 發見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合符

小林 先生은 高麗時代 點吐口訣 資料 中에서 〈瑜伽師地論〉에 다음과 같은 3種類의 合符가 使用된 것으로 보았다.



合符は、漢字二字又は三字以上が一つの概念又は一つの意味上のまとまりを表すことを示す符号である。日本の訓点では漢字と漢字との間に縦短線を施すのが一般であるが、初雕高麗版の瑜伽師地論と大方広仏華厳経に角筆で施された合符は、次掲のように、当該漢字の二字又は三字以上の全字の字面上に縦長線を施している。その位置と形によって次の三種が認められる。

(小林芳規(2001: 57-59), 小林芳規(2002: 26-29), 小林芳規(2004: 150-153) 참조)

또한 漢字 字面의 中央에 내려긋는 a形은 名詞나 形容詞에 使用하고 漢字 字面의 왼쪽에 내려긋는 b와 c形은 動詞에 使用하였다고 記述하였다. 이 가운데 c形은 [表 1]의 合符逆讀線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動詞로 쓰인 二字 漢字語의 왼쪽에 合符를 긋고 거기에 返讀符(곧 逆讀線)가 이어진 形態임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a形과 b形을 區分하는 것은 檢討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筆者는 그동안 이 자료를 硏究하면서 合符의 위치가 中央과 왼쪽으로 區分될 可能性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小林芳規(2004)에 제시된 用例와 張景俊(2008b)의 符號索引에 나오는 合符의 用例를 다시 살펴보았는데, 현재 주어진 資料에서 a形과 b形을 區分할 根據가 不足하다는 結論을 내렸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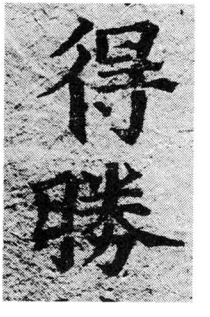
첫째, 單語의 品詞에 따라 合符의 位置가 區分되었다는 假定에 대한 反例가 存在한다. 다음의 例를 보자.



[그림32]樂②5:22



[그림33]心③14:17



[그림34]勝③18:13

小林 先生의 假定에 따르면 [그림32](樂②5:22)와 [그림33](心③14:17)의 例는 文脈上 名詞임이 分明한 경우이므로 合符가 中央에 그어져야 하지만 왼쪽에 그어져 있다. 그리고 [그림34](勝③18:13)은 文脈上 動詞로 쓰였음이 分明한 例임에도 불구하고 合符의 위치는 가운데이다. 만약 [그림34]와 같은 位置를 中央보다 왼쪽이라고 한다면 名詞에 그어진 合符의 많은 例들이 이 정도의 位置에 그어졌기 때문에 더 큰 問題가 發生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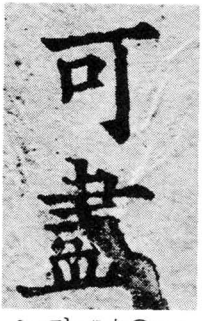
둘째, 合符가 그어진 單語의 品詞를 보면 名詞의 比率이 壓倒的으로 높다. 張景俊(2008b)의 索引에 기재된 53個 中에 50個가 名詞였다.[10] 따라서 품사에 따라 a形과 b形이 區分되었다기보다는 품사와 상관없이 대체로 a形으로 그었는데 一部는 b形처럼 그은 경우도 있다고 記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用例를 檢討해 보면 a形인지 b形인지 區分하기 모호한 경우도 많다.

결국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서 漢字 내부에 그어진 合符의 위치가 漢字의 중앙인지 왼쪽인지의 여부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周本 〈華嚴經〉 系統에서는 合符를 漢字의 바깥쪽에 曲線으로 그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張景俊(2008b)에서는 合符를 內部形과 外部形으로 下位分類하였고 小林(2004)에서도 〈華嚴經〉 卷57에 이러한 모양의 合符가 使用되었음을 記述하였다. 그런데 小林(2004: 153)에 제시된 合符의 例 中에서 3個는 張景俊(2008b)에서 連結線으로 分類되었는데, 다음의 예들이 그것이다.

---

10) 다른 符號에 비해 合符는 특히 잘 보이지 않아서 寫眞上으로 그 실체를 確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小林芳規(2004: 151)에서 動詞에 記入된 b形의 合符로 제시된 3個의 예들은 모두 張景俊(2008b)의 索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筆者가 寫眞을 確認해 본 결과 人爲的으로 記入한 角筆線으로 認定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例들은 原本을 調査할 必要가 있다.


[그림34]盡⑩7:4


[그림35]道⑩7:5


[그림36]生⑩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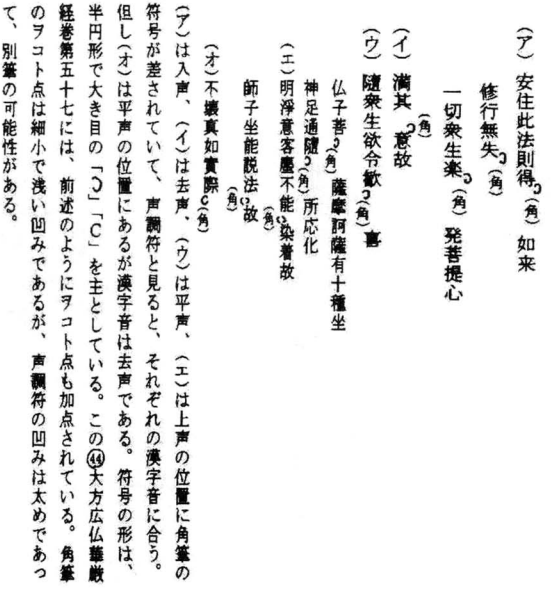
[그림34](盡⑩7:4), [그림35](道⑩7:5), [그림36](生⑩8:4)에서 두 글자의 오른쪽 바깥으로 이어준 선은 形態上 合符와 差異가 없다. 그러나 이 例들은 共通的으로 위의 글자에 點吐가 記入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글자에 記入되어야 하는 것들이다.[11] 따라서 이 符號는 단순한 '合符'가 아니라 讀者에게 '아래 글자에 記入해야 할 것을 위의 글자에 記入하였으니 두 글자를 하나로 連結하여 點吐를 記入하였다고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張景俊(2008b)에서 이것을 '合符'와 區分하여 連結線이라 한 것이다. 連結線은 形態上으로는 合符와 같고 機能上으로는 〈瑜伽師地論〉에 쓰인 指示線과 비슷하다(本稿의 3.1.節 참조).

3.4. 聲調符(四聲點)

小林 先生은 韓國에서 調査한 角筆 資料에서 四聲點이 發見된 文獻을 紹介하였는데 高麗時代 點吐口訣 資料 中에는 〈華嚴經〉 卷57의 경

11) 단, [그림36]의 경우에는 '彼'에 記入된 點吐 5個 중에 아래쪽에 記入된 'ㅣ'는 원래 '彼'에 記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彼生'을 잇는 符號가 合符라고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우가 唯一하다. 小林 先生의 記述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ア) 安住此法則得(角)如来
修行無失(角)
一切衆生楽(角)発菩提心
(イ) 満其(角)意故
(ウ) 随衆生欲令歓(角)喜
仏子菩(角)薩摩訶薩有十種坐
神足通随(角)所応化
(エ) 明浄意客塵不能染着(角)故
師子坐能説法(角)故
(オ) 不壊真如実際(角)
(ア)は入声、(イ)は去声、(ウ)は平声、(エ)は上声の位置に角筆の符号が差されていて、声調符と見ると、それぞれの漢字音に合う。但し(オ)は平声の位置にあるが漢字音は去声である。符号の形は、半円形で大き目の「ɔ」「c」を主としている。この⑭大方広仏華厳経巻第五十七には、前述のようにヲコト点も加点されている。角筆のヲコト点は細小で浅い凹みであるが、声調符の凹みは太めであって、別筆の可能性がある。

(小林芳規(2001: 59-60), 小林芳規(2002: 30-31), 小林芳規(2004: 154-1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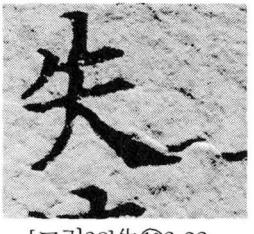
小林 先生의 위와 같은 言及에 대해 그동안 筆者는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고 다만 高麗時代 點吐口訣 資料에서는 四聲點의 存在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2] 그래서 이번에는 四聲點이 있을 수 있다고 假定하고 위에 제시된 例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結果 아래 제시한 바와 같이 [그림37](得⑩9:17), [그림41](歡⑩9:21), [그림46](際⑩7:21)에서는 小林 先生이 지적한 흔적이 비교적 뚜렷이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흔적이

12) 韓國의 다른 研究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韓國에서 發表된 點吐口訣의 研究 成果 중에 四聲點의 存在를 言及한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

보이는 경우에도 이 資料에 記入된 點吐나 符號와는 다른 種類의 눌린 자국으로 생각된다. 筆者가 보기에 이것들은 角筆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記入한 것이 아닐 可能性이 높다. 小林 先生이 "別筆의 可能性이 있다"고 한 表現은 이것이 角筆에 의한 符號가 아닐 可能性도 있음을 認定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37]得⑩9:17


[그림38]失⑩3:22


[그림39]樂⑩3:23


[그림40]意⑩18:10


[그림41]歡⑩9:21


[그림42]菩⑩16:9


[그림43]隨⑩4:23


[그림44]染⑩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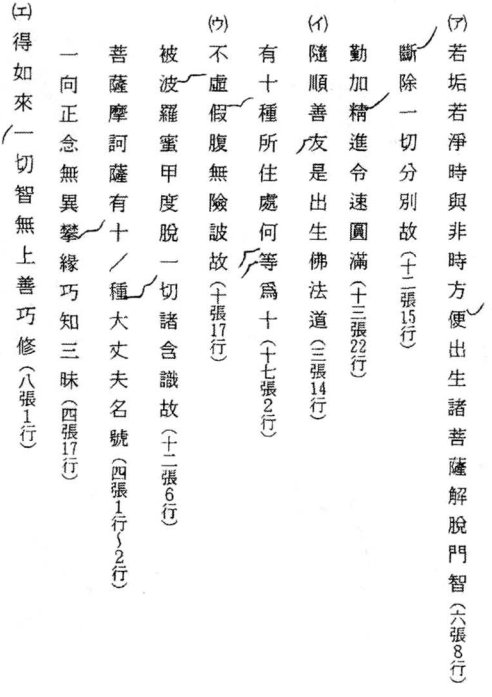

[그림45]故⑩16:13


[그림46]際⑩7:21

따라서 현재 제시된 資料만 가지고는 點吐口訣의 記入者가 符號의 한 種類로서 의도적으로 四聲點을 記入했다고 認定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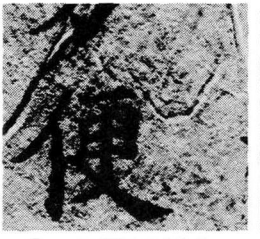
3.5. 節博士

小林 先生은 韓國의 角筆資料에서 佛敎의 儀式이나 法要에서 스님이 부르는 聲樂의 高低, 長短을 表示한 일종의 樂譜인 節博士가 發見되었다고 記述하면서 高麗時代 點吐口訣 資料 中에는 〈華嚴經〉 卷57에서 다음의 例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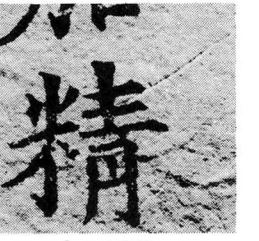


(小林芳規(2001: 60), 小林芳規(2002: 32-33), 小林芳規(2004: 156-157) 참조)

四聲點과 마찬가지로 筆者는 그동안 節博士에 대해서도 그 存在를 認知할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小林 先生이 위에 제시한 例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47]便⑩6:8


[그림47]斷⑩12:15


[그림48]精⑩13:22


[그림49]等⑩17:2


[그림50]友⑩3:14


[그림51]假⑩10:17


[그림52]一⑩8:1


[그림53]攀⑩4:17


[그림54]波⑩12:6


[그림55]種⑩4:2

그 結果 [그림48](精⑩13:22)의 경우 角筆에 의해 意圖的으로 그어진 것이 분명해 보였다.[13]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보이는 線의 흔적이 角筆

13) 形態上으로는 重複線과 비슷하지만 文脈上 이 '精'자는 點吐가 記入될 位置가 아니므로 重複線은 아니다.

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많았고, 角筆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節博士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것이 만일 節博士가 맞다면 왜 그 글자에 記入이 되었으며 각각은 어떠한 高低, 長短을 表現하는 것인지에 대해 說明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이에 대한 硏究는 筆者의 能力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小林 先生이 節博士로 記述한 部分에 대해서는 判斷을 保留하기로 한다. 앞으로 이 방면의 專門 硏究者가 나와서 高麗時代 點吐口訣에 節博士가 使用되었는지에 대해 硏究해 주기를 바란다.

3.6. 注示符

小林 先生은 高麗時代 點吐口訣 資料에서 注示符가 發見되었다는 言及을 하지 않고 例도 들지 않았다. 또한 본고의 [表 1]에도 注示符가 없으므로 현재 調査된 高麗時代 點吐口訣에서 注示符는 쓰이지 않았다고 斷定해도 좋을 것이다.

4. 맺음말

以上으로 韓國의 高麗時代 點吐口訣 10種에 使用된 符號에 대해 그동안 韓國에서 硏究된 結果를 바탕으로 小林芳規 先生의 論考에 記述된 符號에 대해 再考의 餘地가 있는 部分을 檢討해 보았고, 다음과 같은 結論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小林 先生이 '返讀符'로 記述한 다섯 가지 類型 중에서는 〈瑜伽師地論〉 系統에 使用된 [3], [4], [5]만 認定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小林 先生이 '句節符'로 記述한 符號들은 모두 句節符로 보기 어렵다.

셋째, 小林 先生이 '合符'로 記述한 a, b, c의 세 類型 中에 a型과 b型은 區分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넷째, 小林 先生이 '四聲點'의 例로 제시한 것들은 點吐口訣의 符號로 認定하기 어렵다.

다섯째, 小林 先生이 '節博士'의 例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는 判斷을 保留한다.

當然한 이야기이지만, 本稿에서 小林芳規 先生의 論考의 一部를 批判的으로 檢討했다고 해서 先生의 業績이 毁損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筆者는 韓國의 口訣에 대한 硏究의 經驗이 없는 상태에서 日本의 訓點資料에 대한 硏究의 經驗에 의지하여 記述된 小林芳規·西村浩子(2001)은 대단히 소중한 價値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日本의 訓點과 韓國의 點吐口訣을 比較硏究할 때 着眼해야 할 많은 點들을 示唆해 준다는 점에서 特히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筆者가 가지고 있는 疑問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앞의 [表 2]를 통해 確認할 수 있듯이, 韓國의 高麗時代 點吐口訣에는 크게 두가지 系統이 있는데 點圖뿐만 아니라 使用하는 符號의 種類에서도 뚜렷이 區分된다. 그런데 日本의 訓點에서 使用되는 符號에서도 그러한 傾向이 있는 것일까? 만약 있다면 어떠한 樣相을 보이는가? 만약 없다면 韓國의 點吐口訣과 어떤 差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疑問이다. 筆者는 앞으로 이 점에 注意하여 日本의 訓點資料를 공부해 보고 싶다. 여러분의 가르침을 부탁드린다.

參考文獻

金永旭(2001),「〈瑜伽師地論〉 點吐의 解讀 方法 硏究」,『口訣硏究』7, 口訣學會, 57-77.

南豊鉉(2000),「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書誌學報』24, 韓國書誌學會, 5-45.

朴鎭浩(2003),「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口訣硏究』11, 口訣學會, 211-248.

朴鎭浩(2004),「周本 〈華嚴經〉 卷第六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口訣硏究』13, 口訣學會, 129-148.

朴鎭浩(2006),「晉本 〈華嚴經〉 卷第20의 點吐 解讀」,『口訣硏究』16, 口訣學會, 173-208.

李丞宰(2000),「새로 發見된 角筆 符號口訣과 그 意義」,『새國語生活』10-3, 國立國語硏究院, 135-152.

李丞宰(2001),「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國語硏究의 理論과 實際』, 太學社, 229-250.

李丞宰(2002),「옛 文獻의 各種 符號를 찾아서」,『새國語生活』12-4, 國立國語硏究院, 21-43.

李丞宰·安孝卿(2002),「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調査 硏究 —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中心으로 —」,『口訣硏究』9, 口訣學會, 115-145.

李丞宰 外(2005),『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1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의 卷第5·卷第8-』, 太學社.

李丞宰 外(2006a),『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2 －周本 〈華嚴經〉 卷第36 －』, 太學社.

李丞宰 外(2006b),『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3 －周本 〈華嚴經〉 卷第6·卷第57 －』, 太學社.

李丞宰 外(2009a),『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4 －晉本 〈華嚴經〉 卷第20·卷第 〈華嚴經〉 卷第22－』, 太學社.

李丞宰 外(2009b),『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5 －周本 〈華嚴經〉 卷第31·卷第34 －』, 太學社.

張景俊(2002),「口訣點의 位置 變異에 대한 基礎 硏究－〈瑜伽師地論』 卷5, 8을 對象으로－」,『國語史 資料 硏究』 3, 國語史資料學會, 5-30.
張景俊(2003),「〈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 資料의 '指示線'에 대하여」,『口訣硏究』 11, 口訣學會, 189-209.
張景俊(2004),「口訣點의 懸吐 位置의 細分과 位置 變異 現像에 대하여－〈瑜伽師地論〉 卷5, 8을 對象으로－」,『口訣硏究』 13, 口訣學會, 149-174.
張景俊(2006),「點吐 體系의 特徵이 符號의 使用에 미치는 影響－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8의 事例를 中心으로－」,『口訣硏究』 16, 口訣學會, 209-239.
張景俊(2007),『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硏究』, 太學社.(2004年 12月에 提出한 博士學位 論文을 補完하여 出刊한 것임)
張景俊(2008a),「〈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指示線'에 관한 補論」,『國語學』 51, 國語學會, 175-194.
張景俊(2008b),「高麗初期 點吐口訣의 諸符號」,『韓國語學』 40, 韓國語學會, 307-339.
張景俊(2008c),「點吐口訣 硏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口訣硏究』 21, 口訣學會, 67-98.
張景俊(2009),「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의 點吐口訣에 使用된 符號에 대하여」,『國語學』 51, 國語學會, 175-194.
安大鉉(2009),「〈瑜伽師地論〉 點吐口訣의 빼침선에 대하여」,『口訣硏究』 22, 口訣學會, 249-274.
鄭在永 外(2003),『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中心으로－』, 太學社.
小林芳規・西村浩子(2001),「韓國遺存の 角筆文獻 調査報告」,『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36-68.
小林芳規(2002),「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朝鮮學報』 182, 朝鮮學會, 1-82.
小林芳規(2004),『角筆文獻硏究導論(上卷 東アジア篇)』, 東京: 汲古書院.
小林芳規(2006),「日本 訓点의 一源流」,『口訣硏究』 17, 口訣學會, 5-40.
小林芳規(2009),「日本經典訓讀의 一源流」,『口訣硏究』 23, 口訣學會, 241-261.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verdulo@korea.ac.kr
접수일자: 2011. 01. 12
심사일자: 2011. 01. 15
게재결정: 2011. 01. 26

<附錄>

高麗時代 點吐口訣 符號 索引

(2010. 10. 10. 最終 作成)

索引01 - 境界線(計 163個)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生1:15, 生2:3, 分2:7, 等4:19, 水5:5, 邊6:5, 邊6:7, 一7:18, 合8:13, 依9:8, 今9:17, 导11:23, 種12:9, 身13:18, 尒14:3, 別15:1, 等17:9, 八18:3, 等18:4, 處18:22, 十18:23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苦3:21, 命4:2, 法4:9, 一4:15, 一4:15, 男6:16, 交6:17, 會6:17, 女7:8, 故7:20, 唯7:20, 樂8:17, 樂8:17, 上8:19, 一8:21, 求8:22, 生9:4, 害9:5, 害9:5, 害9:12, 害9:14, 迦9:18, 食10:23, 者10:23, 导11:13, 用12:12, 受13:4, 是14:3, 尒14:7, 繫14:16, 生14:20, 滅16:2, 異16:5, 因16:5, 順16:8, 何17:5, 轉17:10, 尒17:12, 轉17:16, 事18:23, 與20:1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起1:15, 色2:22, 事3:14, 第3:19, 事4:16, 了5:15, 怖5:17, 心7:8, 流7:9, 匱7:18, 导8:1, 諸8:1, 流8:8, 利9:12, 執11:13, 業11:14, 家12:14, 行13:7, 大14:18, 上16:5, 力17:16, 淨18:12, 犯18:13, 事18:17, 緣21:13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量2:9, 苦12:9, 中12:18, 餘13:2, 見13:9, 想13:11, 怖13:22, 中14:3, 會15:8, 徧15:16, 行16:4, 喜18:24, 是18:24, 合19:14, 會20:21

〈誠庵本 晉本華嚴經 卷20〉

諍4:8, 一9:5, 身13:23, 心18:6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持6:21, 前10:13, 心11:16, 一13:11, 上13:19, 慧15:2, 諭19:8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地2:19, 生5:10, 普6:13, 寶6:20, 著7:23, 身10:11, 念11:13, 息11:18, 慧12:5, 息14:7, 轉14:13, 法15:17, 一16:17, 及16:17, 一17:2, 等18:7, 根20:2, 界20:6, 善20:11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界1:20, 今5:16, 久6:9, 本6:23, 餘8:18, 事10:14, 足10:20, 餘11:10, 際11:14, 中12:13, 智15:16, 嚴15:19, 少17:16, 事18:18, 量20:19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行1:4, 生2:11, 土6:3, 所6:6, 生6:9, 便6:18, 土7:4, 箭9:18, 火9:18, 力11:5, 一11:19, 更12:10, 中12:20, 者13:1, 一14:15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來4:15

索引02 - 區分線(計 14個)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常9:9, 執11:13, 因13:16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中12:18, 佛16:23, 劫17:6, 持20:1, 變20:19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佛18:19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相9:13, 尊18:18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說8:19, 應8:19,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數5:13

索引03 - 重複線(計 86個)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受(直線)2:3, 生(直線)3:11, 樂(直線)3:16, 成(直線)3:18, 見(直線)4:1, 說(直線)4:2, 嚴(直線)4:6, 藏(直線)4:7, 幢(直線)4:9, 藏(直線)4:20, 嚴(直線)4:21, 慧(直線)4:23, 明(直線)5:14, 具(直線)5:15, 嚴(直線)5:15, 嚴(直線)5:17, 明(直線)6:9, 藏(直線)7:1, 樂(直線)12:11, 相(直線)13:15, 藏(直線)13:20, 音(直線)14:12, 化(直線)14:21, 王(直線)15:20, 現(直線)15:24, 周(直線)16:15, 得(直線)16:16, 持(直線)20:1, 通(直線)20:17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行(直線)5:23, 界(直線)10:22, 田(直線)11:4, 著(直線)14:3, 著(直線)14:8, 著(直線)14:18, 成(直線)16:11, 伏(直線)18:13, 月(直線)20:16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提(複合)3:16, 慧(複合)12:5, 量(複合)17:10, 心(複合)17:16, 念(複合)17:22, 等(複合)19:14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生(直線)1:9, 佛(直線)1:18, 藏(直線)2:20, 明(直線)3:1, 明(直線)3:8, 門(直線)3:22, 種(複合)4:10, 地(複合)4:17, 覆(複合)6:8, 時(複合)6:13, 猛(複合)6:15, 明(複合)7:11, 信(複合)8:8, 知(直線)8:17, 力(複合)9:6, 畏(直線)10:6, 法(複合)10:19, 佛(直線)11:10, 量(複合)12:8, 惜(直線)15:11, 果(複合)16:22, 果(複合)16:24, 果(複合)17:3, 少(複合)17:16, 盡(直線)20:2, 力(複合)20:19, 量(複合)20:19, 別(複合)20:20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具(直線)4:19, 現(複合)5:13, 壞(複合)6:17, 轉(複合)6:19, 淨(直線)10:7, 瑩(複合)12:9, 現(複合)13:5, 中(複合)14:3, 一(複合)14:15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斷(直線)11:6, 動(直線)18:14, 槃(直線)19:18, 絶(直線)19:19, 生(直線)20:7

索引04 - 指示線(計 91個)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法(/)1:8, 立(/)1:19, 微(/)2:8, 根(/)2:13, 聚(/)2:18, 者(/)3:4, 說(/)3:4, 切(/)5:22, 切(/)6:2, 切(/)6:4, 切(/)6:6, 意(\)6:23, 有(/)7:12, 心(/)7:18, 那(/)7:19, 時(\)7:21, 生(\)8:12, 行(/)9:9, 所(/)10:7, 緣(/)10:12, 者(/)11:6, 心(/)14:2, 立(/)14:10, 事(/)20:4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勝(/)1:20, 依(/)2:18, 邊(/)3:4, 世(/)3:8, 得(/)4:13, 憂(/)4:16, 等(\)5:4, 事(/)5:6, 癰(\)5:9, 觸(\)5:12, 一(/)5:20, 天(/)6:9, 苦(/)6:14, 欲(/)6:16, 會(/)6:17, 手(/)7:1, 天(/)7:8, 故(\)7:20, 奇(/)8:2, 生(/)8:19, 少(/)8:19, 用(/)10:1, 信(/)10:12, 者(/)10:14, 主(/)10:15, 子(/)11:10, 故(\)14:3, 行(/)17:13, 轉(\)17:16, 險(/)18:17, 宜(\)20:1, 樂(/)20:3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訣(/)2:6, 界(/)2:22, 執(/)3:4, 常(/)3:11, 一(/)3:19, 前(/)4:21, 中(/)5:23, 者(/)6:2, 心(/)6:5, 中(\)6:14, 欲(/)7:6, 乏(/)7:18, 樂(/)9:6, 方(\)9:9, 中(/)9:11, 利(/)9:12, 謂(/)10:1, 別(/)11:2, 者(\)11:4, 他(/)11:15, 說(\)12:4, 失(/)12:7, 族(/)12:15, 故(\)13:16, 了(/)14:16, 妙(/)14:14, 一(/)15:1, 天(/)16:23, 別(/)17:19, 事(/)17:21, 前(/)18:5, 淨(\)18:11, 會(/)18:17, 中(/)18:21, 行(/)19:12

索引05 - 連結線(計 13個)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成就16:12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勝智18:10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解釋4:24, 解釋5:3, 開演5:4, 字母者6:17, 敬受8:17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可盡7:4, 助道7:5, 彼生8:4, 記別17:10, 闥婆18:22, 緣起19:6

索引06 - 合符(計 67個)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生起(內部)7:19, 心一境性(內部)8:19, 已生未滅相(內部)9:14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三種樂(內部)5:22, 生建立(內部)7:13, 自所害(內部)9:5, 羯羅藍(內部)9:12, 遏部曇(內部)9:12, 宗因譬喩(內部)10: 18, 自業作用(內部)11:5, 自生和合(內部)14:10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不寂靜(內部)1:15, 高下勝劣(內部)4:10, 自性染汙(內部)7:13, 依事(內部)7:15, 造作相(內部)9:19, 捻句(內部)10:7, 害極害執(內部)10:9, 无有羞耻(內部)10:10, 未遠離(內部)10:21, 所煞生(內部)11:3, 不與而取(內部)11:12, 不與而樂(內部)11:13-14, 饕餮而取(內部)11:21, 離愛味心(內部)14:17, 可樂語(內部)15:4, 現在世事(內部)15:4, 无悔等(內部)15:8, 不正思審(內部)15:18, 穢染(內部)15:23, 舞樂戲笑俳(內部)16:1, 於財(內部)16: 6, 當煞(內部)16:13, 當害(內部)16:14, 當爲衰損(內部)16:14-15, 當所說(內部)16:19, 立如是論(內部)16:20, 殖種功用(內部)17:21, 時分清淨(內部)18:10, 諍處(內部)18:10, 得勝(內部)18:13, 鄙事(內部)18:17, 非鄙(內部)18:19, 遠離猥法(內部)18:19, 正行清淨具足(內部)18:20, 可信(內部)18:21, 可委(內部)18:22, 應可建立(內部)18:22, 建立(內部)18:23, 无有虛誑(內部)19:1, 欲邪行究竟(內部)19:14, 離不與取(內部)20:14, 離邪見(內部)20:14

〈誠庵本 晉本華嚴經 卷20〉

不生(內部)5:22, 无导法身(內部)15:18, 分別(內部)16:1, 无导解脫(內部)16:9, 清淨法身(內部)17:6, 相好庄嚴(內部)17:6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赴感(外部)14:24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衆生(外部)5:2, 演說三昧(外部)10:4, 不退善巧方便(外部)11:7, 安慰一切衆生(外部)14:9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解淸淨(內部)10:17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堅固不動(內部)4:16, 他敎(外部)8:21

索引07 - 逆讀線(計 234個)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依1:10, 由1:11, 由1:19, 由1:20, 望2:2, 有2:2, 无2:3, 非2:5, 卽2:8, 非2:9, 有2:9, 非2:10, 有2:12, 除3:3, 有3:4, 約3:7, 約3:8, 有3:9, 隨3:11, 有5:17, 非6:1, 非6:3, 所6:14, 取6:20, 非7:4, 有7:4, 由7:10, 非7:19, 生7:19, 無8:1, 遍8:11, 由9:12, 有9:17, 未9:17, 立9:20, 除10:7, 立10:12, 立10:13, 感11:19, 不12:1, 有18:1, 卽18:18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受1:6, 受1:7, 受1:8, 受1:9, 无2:7, 由,2:13 起2:14, 起2:14, 遍2:18, 非2:19, 依2:20, 非2:22, 通2:23, 懼3:13, 能3:18, 断3:18, 起4:15, 非4:23, 有5:17, 有5:17, 有5:17, 依5:20, 非5:20, 謂5:20, 有5:21, 有6:6, 有6:7, 无6:19, 无7:5, 除7:6, 无7:8, 由7:18, 用8:6, 以8:10, 無8:15, 起8:18, 不8:19, 求8:21, 求8:22, 得9:4, 不9:12, 由9:12, 在9:13, 處9:15, 有9:20, 除10:3, 住10:14, 具10:15, 不12:10, 欲12:10, 依12:12, 依12:13, 由12:14, 由13:10, 由14:10, 无15:19, 非15:23, 不16:15, 觸17:13, 不18:20, 引19:23, 遮19:23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由1:5, 由1:11, 說1:16, 立1:17, 由1:17, 分1:19, 由2:12, 有2:20, 除2:21,

有2:21, 除3:2, 壞3:14, 用3:14, 聞3:15, 以3:16, 用3:19, 由3:20, 由4:6, 由4:9, 用4:16, 由4:19, 由4:19, 順4:21, 由4:22, 由4:23, 聞4:23, 由4:23, 由5:10, 感5:12, 與5:13, 由5:14, 生5:23, 由6:2, 緣6:2, 緣6:3, 緣6:3, 由6:4, 起6:4, 以6:5, 起6:5, 由6:5, 通6:23, 倒7:8, 起7:8, 覆7:12, 攝7:15, 燒7:20, 所7:20, 障7:23, 隨8:2, 所8:2, 有8:20, 斷8:22, 得8:22, 引9:5, 遠9:6, 不9:8, 得9:8, 不9:11, 斷10:9, 引10:11, 作10:12, 治10:14, 說10:14, 治10:16, 說10:16, 顯10:21, 遇10:21, 煞11:3, 顯11:4, 非11:5, 顯11:5, 爲11:23, 所12:18, 行13:1, 隨13:13, 說13:17, 非14:11, 非14:12, 引14:13, 至14:19, 由15:8, 翻15:11, 挾15:17, 引15:22, 顯15:23, 觀16:1, 有16:2, 顯16:3, 由16:4, 所16:7, 顯16:8, 起16:13, 失16:16, 顯16:19, 顯16:20, 授16:20, 由16:21, 顯17:1, 說17:5, 說17:7, 說17:10, 趣17:13, 行17:14, 謗17:20, 謗17:20, 不18:2, 謗18:2, 謗18:3, 得18:8, 顯18:10, 顯18:11, 作18:12, 觸18:16, 不18:18, 以18:18, 出18:18, 翻18:21, 顯19:2, 起19:7, 起19:9, 起19:9, 所19:12, 起20:3, 起20:9, 起20:16, 由21:3, 生21:5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非13:24

索引08 - 合符逆讀線(計 61個)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依附1:12, 修習1:23, 施設3:8, 了別8:4, 發起9:3, 發起9:4, 建立9:15, 建立10:2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遍滿2:19, 引發3:1, 引發3:2, 摧伏4:6, 受用4:21, 流入6:10, 攝受7:3, 攝受7:5, 建立8:12, 觀待12:7, 觀待12:10, 施設14:3, 獲得14:10, 發起16:20, 不捨19:22, 供事20:4, 受學20:14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迷執2:12, (等隨)觀執3:6, 親近3:15, 比方3:18, 親近3:20, 親近4:2, 親近

4:5, 親近4:8, 親近4:11, 隨學4:22, 障导5:10, 引發5:13, 樂著7:23, 證得7:23, 惱乱9:1, 發起9:2, 退失9:7, 證得9:11, 顯示10:17, 顯示10:19, 顯示10:20, 顯示10:23, 顯示11:2, 受行11:14, 不過14:18, 領受15:4, 傷害16:14, 損惱16:14, (忍可)欲樂16:19, 非撥16:22, 非撥17:1, 顯示17:20, 顯示17:23, 誹謗17:23, 受持18:19, 應可18:23

索引09 - 述目線(計 21個)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修3:7, 立12:5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淨16:13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行10:15, 吼10:20, 現18:14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定10:11, 多10:17, 治10:6, 行16:14, 淨16:14, 淨16:19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闕14:7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念5:2, 離7:19, 輕17:3, 授17:10, 捨18:12, 負18:13, 破18:15, 見18:17

索引10 - 補充線(計 21個)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海(—)3:3, 聲(—)11:23, 力(—)12:4, 海(—)12:6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寶(—)3:8, 重(—)9:21, 心(—)10:9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別(—)8:5, 得(—)13:3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處(—)12:2, 緣(—)12:17, 事(\)18:5, 心(—)19:10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生(—)2:3, 土(—)2:4, 土(—)6:3, 便(—)6:5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忍(\)18:3, 地(\)18:4, 地(\)18:5, 昧(\)18:6

索引11 - 點圖線(計 8個)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5:23 欄上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10:23欄上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等18:11, 侍18:11, 邇18:13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財10:8, 12:7欄下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智14:23

索引12 - 削除線(計 10個)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作5:8, 淨7:9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樂1:13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起4:16, 際7:21, 相8:10, 尊9:24, 淨10:16, 物10:18, 闥18:22

索引13 - 校正符號(計 7個)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諸(墨書ㅅ)7:2, 四(角筆ㅅ)20:12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樂(墨圈點)5:23, 色(墨圈點)10:4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離(墨圈點)10:22

〈誠庵本 珍本華嚴經 卷20〉

分(墨圈點)1:15, 切(角筆圈點)6:1

索引14 - 口訣字(計 93個)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法(乙)1:8, 色(七)1:12, 心(乙)1:13, 種(乙)1:17, 色(十)2:9, 分(印)2:10, 水(ᄉ)2:17, 攝(ᄀ)3:8, 聚(十)4:6, 力(ᄒᆞ)7:14, 事(十)7:20, 依(印)8:19, 思(ᄒᆞ)9:1, 今(ᄉ)9:17, 學(ᄒᆞ)11:18, 眼(ᄒᆞ)14:5, 五(ㄱ)16:23, 色(十)17:18, 處(ᄆᆞ)18:22, 法(乙)18:22, 有(十)19:6, 等(ㅣㅅ)19:9, 食(ㅣ)20:5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力(ㅣ)1:18, 苦(印)3:17, 法(乙)4:7, 者(ᄒᆞ)4:7, 夫(印)5:1, 熱(ㅣ)5:14, 種(ㄱ)6:4, 天(ᄒᆞ)6:9, 二(ㅣ)6:16, 會(ᄆᆞ)6:17, 會(ᄆᆞ)6:18, 惱(ㅣ)7:1, 人(ㄱ)7:3, 天(火)7:7, 上(ᄀᆞ)7:8, 生(ㅣ)7:21, 緣(ᄆᆞ)8:1, 他(ᄒᆞ)8:2, 一(ㅣ)8:21, 用(ㅣ)10:1, 者(十)10:14, 處(ㅣ)10:22, 地(ㄱ)11:7, 法(十)11:23, 法(ㅣ)14:10, 分(印)15:14, 法(ㅣᄉ)15:19, 順(ㄱ)16:8, 相(ㄱ)16:20, 所(ㄱ)17:3, 伺(ㄱ)17:21, 險(ᄉ)18:17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相(ㅣ)1:14, 行(ㅣ)1:15, 瞋(乙)3:2, 知(乙)4:14, 法(乙)4:23, 惱(ᄒᆞ)5:8, 行(乙)5:11, 生(乙)5:22, 事(乙)6:2, 攝(ㅁ)6:6, 斷(印)6:7, 惱(ㅣ)6:15, 是(ㄱ)6:15, 是(ㄱ)6:16, 樹(ㅣ)7:22, 生(乙)7:23, 別(ㄱ)8:2, 中(十)8:3, 結

(卬)8:3, 縛(卬)8:4, 眠(乙)9:2, 稱(乙), 方(十)9:9, 句(亅)10:19, 來(火?)10:22, 句(亅)11:4, 與(卬)11:16, 句(刂)12:9, 事(十)13:4, 句(刂)14:14, 法(乙)14:16, 理(丶亅)15:21, 他(氵)17:18, 淸(刂口)18:12, 樂(乙)19:7, 業(亅)21:12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知(恨)8:17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憺(𠂢)16:18, 一(二分)20:9

索引15 - 漢字(計 23個)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1:10欄下墨書(?來), 7:2欄上墨書(諳), 20:12欄上(品)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10:4欄上墨書(依)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汙(五)14:7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1:12欄上(請), 13:16欄上(此一結集者頌), 16:10欄上(常出三世/顯斷二障/二障煩惱/障所知障/現常現在前), 16:23欄上(此十歡/衆會)

〈誠庵本 晉本華嚴經 卷20〉

1:15欄上墨書(有本種〃分別), 6:1欄上墨書(別本云一切淨), 13:17欄上墨書(有本云衆生ヲ身ヒ中ヨ十)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實(勿)12:4, 實(勿)13:14, 實(勿)13:17, 實(勿)14:5, 實(勿)14:21, 由(経)19:17, 19:17欄下(由經也)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埵(墮)4:3, 怕(朴)16:19, 殼(却)19:2, 我(分)20:9

索引16 - 빼침선(先細の線) (計 55個)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色(42,\)1:16, 彼(22~32,\)1:16, 因(42,\)1:17, 因(42,\)2:1, 聚(22~32,\)2:5, 種(42,\)2:21, 種(42,\)2:22, 滅(42,\)4:16, 等(22~32,\)5:7, 轉(42,\)7:17, 生(23~24,/)(51,/)9:17, 那(43,/)9:23, 导(22~32,\)11:23, 樂(22~32,\)12:3, 命(22~32,\)12:4, 擇(22~32,\)12:4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活(42,\)4:2, 以(44,/)4:12, 化(15,/)6:10, 穢(15,/)6:11, 會(14,/)6:18, 己(31,\)7:19, 塵(22~32,\)7:19, 他(31,\)7:19, 自(31,\)7:23, 他(31,\)8:1, 生(31,\)8:15, 生(31,|)8:17, 處(31,\)8:18, 此(43,/)8:19, 設(43~44,/)16:23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第(42,\)3:19, 导(22,\)5:15, 害(22~32,\)7:13, 殺(22~32,\)10:8, 儀(42,\)10:14, 所(42,\)10:15, 命(=42,\)10:16, 所(42,\)10:17, 離(44,/)10:22, 穢(22~32,\)12:12, 兒(31,\)12:15, 失(22~32,\)13:5, 等(31,\)13:16, 者(31,\)15:19, 害(22,\)16:13, 種(42,\)16:22, 行(42,\)17:3, 熟(42,\)17:5-6, 世(42,\)17:7, 父(42,\)17:9, 情(42,\)17:10, 漢(42,\)17:12, 壽(43,/)18:9

索引17 - 不審紙(計 132個)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11:13-14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11:12, 15:16-17, 16:10, 17:12, 17:15, 18:11, 19:1, 19:12-13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3:7-8, 4:6, 8:19, 9:17, 11:7, 12:3, 12:7, 12:8, 12:14, 12:20, 12:22-23, 13:11, 13:19, 14:1, 14:3, 14:15, 15:7, 15:18, 16:12, 17:10, 18:10, 18:13, 19:10-11, 20:2-3, 20:8, 20:13,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5:18, 6:9-10, 6:13, 7:16, 8:4, 8:8, 8:22, 9:12-13, 9:23, 10:15-16, 10:21-22, 11:5, 11:12-13, 11:15, 11:17-18, 12:8, 14:6, 14:9, 15:15, 17:9-10, 17:22-23, 18:8-9, 18:13-14, 18:19-20, 19:15-16, 19:24, 20:17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3:1, 4:4-5, 10:16, 11:3-4, 11:6-7, 11:16, 11:19-20, 11:24, 12:8-9, 12:24, 13:10, 14:3-4, 14:8, 14:18, 16:10-11, 16:14-15, 16:19, 16:20, 17:19, 19:13-14, 20:9-10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1:12-13, 2:3-4, 2:14-15, 3:15-16, 3:19-20, 4:2, 5:20, 9:2-3, 9:13, 9:18, 10:2-3, 10:9, 10:21, 11:17, 11:20-21, 12:12-13, 13:16-17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3:9, 3:13-14, 4:15-16, 6:8, 6:11-12, 6:13, 7:1, 7:4-5, 7:8-9, 7:12, 7:14-15, 7:22, 8:2, 9:5, 9:10-11, 10:20, 11:7, 11:21-22, 13:2-3, 13:15, 14:11, 15:5, 15:12, 15:22, 16:4, 16:11-12, 16:21, 17:1, 17:8-9, 18:4-5, 18:20, 19:11-12

索引18 - 未詳(計 5個)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處7:8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觀3:10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邊5:2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爲6:23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僞10:17

高麗時代点吐口訣の符号について
小林芳規先生の論考の検討

張景俊

本稿は韓国の高麗時代の点吐口訣に使用されている符号について、近年の研究成果を基づいて、小林芳規先生のご論考における符号に関する内容の中で再考の余地があると判断される部分につい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検討の結果をまとめると、以下のとおりである。

一　小林先生が返読符として記述した五つの類型の中で、〈瑜伽師地論〉系統に使用された[3]、[4]、[5]だけを返読符として認めたほうがいいと思う。

二 小林先生が句節符として記述した符号はすべて句節符と見なしにくい。

三　小林先生が合符として記述したa、b、cの三種の類型のうち、aとbは分けないほうがいいと思われる。

四 小林先生が四声点の例として提示したものは、点吐口訣の符号と認めるのはやや難しいと思う。

五 小林先生が節博士の例として提示したものについては判断を保留したい。

本稿で小林先生のご論考の一部をやや批判的に再検討してきたわけであるが、これによって小林先生のご業績の価値が毀損されるわけではまったくない。むしろ、日本訓点資料の研究経験だけに基づいて記述された小林芳規・西村浩子(2001)は大変大きな価値を有す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漢文訓読, 点吐口訣, 釈読口訣, 訓点, 符号